

부적응 다문화 청소년의 애착과 정서 표현 양가성 관계에서 대인관계 문제의 매개효과

권영순*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사회복지상담학과, 박사과정수료

변상해**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사회복지상담학과, 교수

국문요약

본 연구에서는 부적응 다문화 청소년을 대상으로 애착 불안, 애착 회피가 정서 표현 양가성에 영향을 살펴보고 부적응 다문화 청소년 애착 유형과 정서 표현 양가성 간의 관계에서 대인관계 문제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연구에서는 부모와의 애착패턴을 파악하는 것보다 가까운 타인의 애착수준 파악이 중요하다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연구 대상은 경기도에 위치한 10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200명을 분석하려고 한다.

척도는 자기 보고식 질문지인 ECR-R, AEQ-K, IIP가 사용되었다. 분석은 SPSS/WIN 24.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 통계를 실시한 후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회귀 분석과 Sobel검정을 실시하고자 한다.

핵심어: 대인관계, 정서표현 양가성, 부적응, 다문화 청소년, 애착

I. 서론

청소년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청소년기의 대인관계가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청소년기는 신체적 변화가 일어남과 동시에 심리적으로도 자기정체성을 형성하게 되는 시기이나, 자기역할에 대한 갈등, 의존과 독립의 갈등, 사회부적응에서 오는 갈등 등으로 인한 많은 정신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시기로 인식된다(김성주·이영순, 2016). 2000년 이후 증가한 다문화가정의 구성원 중 2세대 자녀의 상당수는 본격적으로 청소년기에 진입하게 되었으며, 청소년기 특성과 맞물려 경험하게 되는 복합적인 어려움은 심리적 부적응으로 이어질 수 있다(강화·배은경, 2018). 다문화 가정 청소년은 가족해체, 경제적 어려움 등 다양한 문제를 경험하기 쉬우며(선남이, 2013), 비다문화가정 청소년에 비하여 불안, 우울, 신체화, 과잉행동과 낮은 자아개념 등의 심리적 부적응 문제가 높은 수준으로 나타난 바 있다(박주희·남지숙, 2010; 서진희, 2012; 이선혜, 2011).

본 연구에서는 부적응 다문화 청소년의 애착과 대인관계

문제에 대해 살펴보고, 애착과 대인관계 간의 관계에서 애착과 대인관계에서 정서 표현 양가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해 보고자 한다. 첫째, 부적응 다문화 청소년의 애착유형에 따른 대인관계 문제, 정서표현 양가성과 상관관계가 있는가? 둘째, 부적응 다문화 청소년의 애착유형에 따른 정서표현 양가성의 관계에서 대인관계 문제는 매개효과가 있는가?

II. 이론적 배경

2.1. 부적응 청소년

부적응 청소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부모와 형성된 애착 관계를 이해하는 것보다 가까운 지인들과의 애착수준 정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까지 부적응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학교와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를 파악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에서 접근이 시도되었다(이한우·염동문, 2015; 김성주·이영순, 2016).

학교 부적응 청소년의 경우 학교뿐 아니라 가정에서의

* 주저자,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사회복지상담학과 박사과정수료, pokto@hanmail.net

** 교신저자,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사회복지상담학과 교수, jm9004@svuac.kr

보호 및 관리의 범위에서 벗어나 다양한 유해환경의 위협 속에 생활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백혜정 외, 2015). 특히 부적응 청소년은 불규칙한 생활 등으로 인해 신체적 건강문제(Valkov, 2018)뿐 아니라 우울 및 자살 충동, 무기력 등의 정신건강 문제(Hjorth et al., 2016)에도 노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Bowlby(2014)는 애착유형에 따라 타인과의 관계방식에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애착은 청소년기의 성격과 행동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Mikulincer et al., 2007).

2.2. 부적응 다문화 청소년

부적응 다문화 청소년은 한국에서 태어나고 성장하여 일반적으로 학교에 잘 적응하고 한국인이라는 정서를 갖고 있으나, 부적응 다문화 청소년이 겪는 경험은 부모세대와 다르며 타의에 의한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부모에 비해 더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관다영·전혜성, 2019). 특히, 학령기 초기에는 또래로부터 소외된 경험을 갖는 등 적응의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이주영 외, 2014).

부적응 다문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여러 연구자들은 초기 청소년기에 형성된 정서표현 양가성이 중요하다고 보았다(하유미·박성연, 2012; 신선임, 2015). 불안정 애착을 가진 다문화 청소년일수록 정서표현 양가성을 많이 경험하였으며, 정서표현 양가성은 불안정 애착과 심리적 안녕감 간의 매개역할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김용희, 2014). 정서표현 양가성은 정서표현성 자체뿐만 아니라, 정서표현을 하고 싶은 마음과 그렇지 않은 마음 사이의 갈등, 즉 내면의 정서표현에 대한 두 가지 종류의 갈등으로 표출된다(송은주, 2016).

2.3. 애착과 정서적 표현 양가성

선행 연구에서 회피 애착 유형일수록 자신의 정서로부터 멀어지려고 하고, 정서 차단 경향이 강하며, 정서 인식에서도 어려움을 겪는다(Cassidy & Kobak, 1988; Wei et al., 2005)고 보고하였으며, 국내의 연구들도 애착과 정서표현 양가성의 관계를 입증하였다. 전현숙(2012)에 따르면, 회피 애착이 높은 사람일수록 정서표현에 대한 양가성을 높이 경험하며, 불안 애착이 높은 사람들도 내면적으로 정서를 표현하는 데 있어 양가성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밝혔다. 김광은(2004)에 따르면 불안 애착이 높을수록 연인관계 내에서 경험하는 정서를 솔직하고 자연스럽게 표현하

는 것에 대해 갈등하고 억제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김정문(2010)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불안정 애착이 정서표현 양가성을 매개로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2.4. 대인관계

애착과 대인관계가 관련 선행연구에서는 청소년 애착에 관한 연구에서는 애착 불안과 애착 회피라는 2개의 차원으로 구분되어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관다영·전혜성, 2019; 박주희·남지숙, 2010) 자아 분화 수준이 높을수록 대인 관계에서의 문제가 낮으며, 자기감정을 잘 통제하고, 충동적이고 합리화, 약물 남용과 같은 불안을 없애는 데 어려움이 없을수록 대인관계에서도 문제가 적게 나타나는 것을 밝혔다(아영아, 이영미,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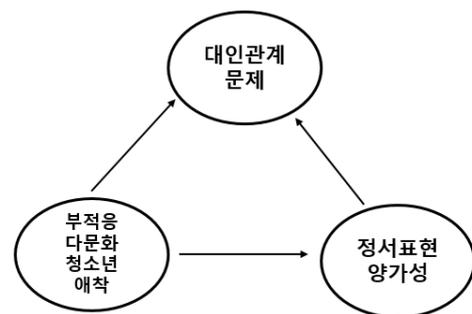
또한, 애착유형과 대인관계에 대한 차이 연구에서는 안정적 애착을 보이는 사람들이 회피나 불안 애착을 가진 사람들보다 동료들로부터 사랑받는다고 느껴서 쉽게 자기 노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안정 애착은 신뢰와 자신감이 높아 대인관계에서 성공적으로 나타난 반면에 동료 등에게 불신감을 가진 불안정 애착은 타인과 정서적 거리를 두는 것으로 보인다(박장희·조윤주, 2006; Feeney & Noller, 1990).

III. 연구방법

3.1. 연구대상

본 연구는 G도에 위치한 10개 고등학교에서 재학 중인 부적응 다문화 청소년 200명을 대상으로 자기보고식 질문지를 실시하려고 한다.

3.2. 연구도구



<그림 1> 연구모형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부적응 다문화 청소년의 애착이 정서 표현 양가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부적응 다문화 청소년의 애착이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다문화 청소년의 정서 표현 양가성은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부적응 다문화 청소년의 애착과 정서 표현 양가성의 관계에서 대인관계는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강화 배은경(2018).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심리적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적응 유연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62, 131-164.
- 관다영·전혜성(2019). 다문화청소년이 지각한 외국인 어머니의 지지가 성취목표지향성과 대인관계지향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가족과 가족치료*, 27(3), 529-548.
- 김광은(2004). 성인 애착 유형과 요인에 따른 성격특성 및 스트레스 대처방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6(1), 53-69.
- 김성주·이영순(2016). 대학생의 청소년 애착과 사회불안의 관계. *재활심리연구*, 23(4), 759-782.
- 김용희(2014). 대학생의 애착이 대인 관계 문제에 미치는 영향 : 정서 표현 양가성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1(11), 291-316.
- 김정문(2010). 불안정 애착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자 동적 사고 정서 인식 정서 표현 양가성,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 박장희·조윤주(2006). 대학생들의 낭만적 애착과 대인관계문제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4(7), 113-124.
- 박주희·남지숙 (2010). 다문화아동의 언어발달과 심리사회적 적응. *한국청소년연구*, 21(2), 129-152.
- 백혜정·송미경·신정민(2015).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 체계화 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5(9), 257-266.
- 서진희(2012). *다문화가정 아동과 일반가정 아동의 불안, 우울, 자아존중감 비교* 박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 선남이(2013).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사회적 배제가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연구*. 박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 송은주(2016). *부모화, 청소년 애착과 이성 관계 만족 관련 변인의 구조모형 검증 : 정신화의 조절 효과*. 박사학위논문, 인천대학교.
- 신선임(2015). 청소년 애착유형과 자아 탄력성 수준에 따른 대학 생활 적응의 차이. *청소년학 연구*, 22(9), 255-276.
- 이영아·이영미(2016). 성인애착이 대학생의 대인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분화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청소년상담연구*, 24(1), 89-106.
- 이선혜(2011). *결혼이민자와 자녀의 정신건강 실태와 인식*. 박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 이주영·이미애·문재우(2014). 다문화가정 아동의 문화적응이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지지와 자아탄력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다문화교육연구*, 7(3), 113-114.
- 이한우·염동문(2015). 대학생의 정서인식과 대인 관계 간의 관련성에서 정서 표현 양가성과 정서 표현의 이중 매개효과. *정서·행동장애 연구*, 31(2), 2015, 85-106.
- 전현숙(2012). *마음챙김이 역기능적 분노에 미치는 영향: 분노 반추의 매개효과*. 박사학위논문, 전북대학교.
- 하유미·박성연(2012). 어머니의 청소년 애착, 부정 정서 및 정서 조절 양식이 양육 행동에 미치는 영향. *인간 발달 연구*, 19(2), 175-195.
- Bowlby, J.(2014). By ethology out of psycho -analysis: An experiment in interbreeding. *Animal Behavior*, 28, 649-656.
- Cassidy, J., & Kobak, R.(1988). Avoidance and its relation to other defensive processes. In J. Berlsky, T, Nezworski (Ed.), *Clinical implications of attachment*, 300-323, Hillsdale, Erlbaum.
- Feeney, J. A., & Noller, P.(1990). Attachment styles as a predictor of adult romantic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 281-291.
- Hjorth, C. F., Bilgrav, L., Frandsen, L. S., Overgaard, C., Torp-Pedersen, C., Nielsen, B., & Bøggild, H. (2016). Mental health and school dropout across educational levels and genders: a 4.8-year follow-up study. *BMC Public Health*, 16(1), 1-12.
- Kobak, R. R., & Sceery, A.(1988). Attachment in late adolescence: Working models, affect regulation, and representations of self and others. *Child Development*, 59, 135-146.
- Mikulincer, M., & Shaver, P. R.(2007). Boosting attachment security to promote mental health, prosocial values, and inter-group tolerance. *Psychological Inquiry*, 18, 139-156.